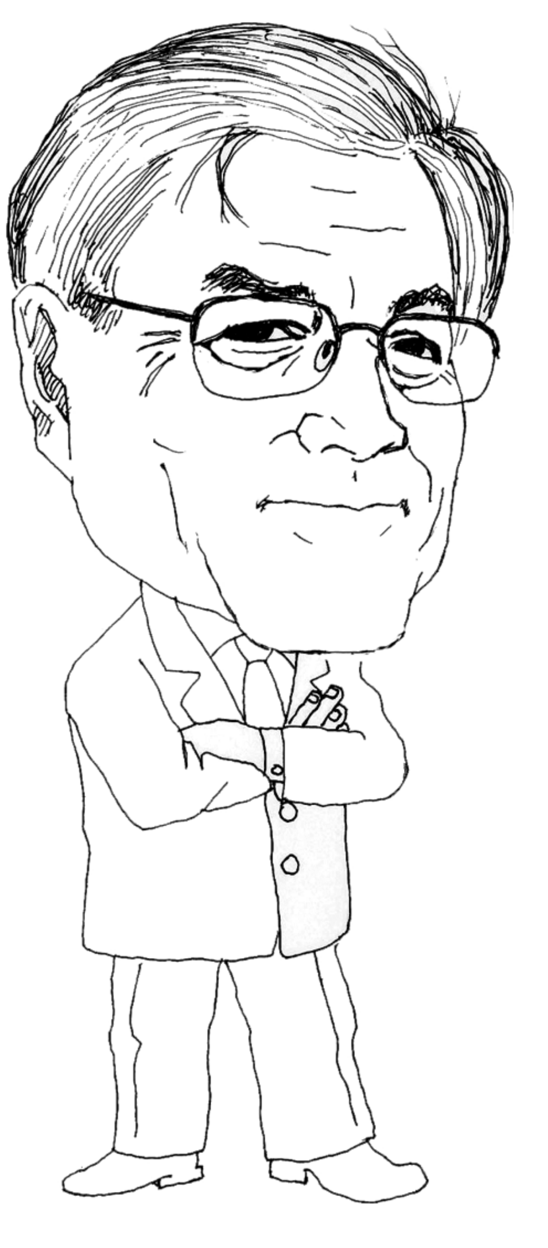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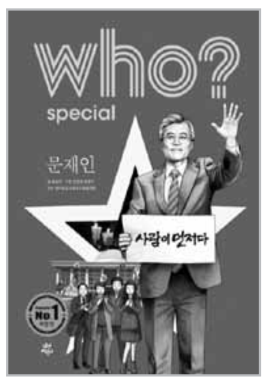


캐리커처 - 고근호

"국민들은 희망을 갈구하고 있다.
더 이상 절망의 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역사에 반면교사(反面教師)라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역사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증언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재인의 운명' 중에서)



"문재인을 알자"… 서점가 대통령 특수

'문재인의 운명' 등 판매 급증
세월호·촛불의 분노 등 아픔과 새로운 대한민국 청사진 담겨
'타임' 아시아판 최근호는 품절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출판계도 관련 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등 '문재인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펴낸 책 중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의 운명'은 선거 직전인 7~8일과 비교해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판매량이 4배 늘었다. 예스24 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관련 책들은 10일 오후 2시 기준 판매량이 전날보다 3.6배 이상 늘었다. 지난 9일 329권이 판매됐지만 10일에는 1109권이 판매를 기록하는 등 전날에 비해 363.2%가 늘었다.

현재 '문재인의 운명'(가교, 북팔), '대한민국이 묻는다'(21세기북스), '후 who? special 문재인'(다산어린이), '1219 끝이 시작이다'(바다출판사) 등이 문재인 관련 책 가운데 비교적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들이다.

예스 24 집계에 따르면, 책을 구매하는 연령층은 주로 30대(43.7%)와 40대(36.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많은 지지를 보냈던 30대와 40대가 주요 독자층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문재인의 운명'이다. 지난 2011년 6월 가교출판에서 발간됐지만, 올해 2월 출판사 북팔에서 새 계약을 맺어 출간돼, 현재는 두 출판사의 책이 모두 판매되고 있다. 북팔은 책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고 촛불집회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저자의 사진을 추가했다.

'문재인의 운명'은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저자가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를 비롯한 30년 동행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저자가 처음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서거 이후까지의 30여년 세월 동안의 인연과 이면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만남' '인생' '동행' '운명' 총 4장으로 나뉘어 기술된 책에는 정치적 파트너로서, 친구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삶의 격랑을 헤쳐온 두 사람의 인연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밖에 올해 1월 출간된 대담집 형식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와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년 후인 2013년 12월 자기 반성과 성찰 등을 담아 펴낸 '1219 끝이 시작이다' 등도 독자들이 즐겨 찾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부제가 붙은 '대한민국이 묻는다'에는 다시 만들어 세워야 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문재인은 세월호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며 바닥으로 떨어진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책에는 대한민국이 겪는 진통과 해결책, 또한 문재인이 설계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두루 담겨 있다.

"천만의 촛불에는 분노뿐 아니라, 우리 삶을 억압해온 수많은 비정상적이고 낡은 구조들에 대한 청산과 대개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실천해내는 게 바로 정치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이후 성찰과 반성,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기술한 '1219 끝이 시작이다'는 냉정한 평가를 통한 도전을 이야기한다. 문재인은 당시 대선 패배의 이유로 '평소의 준비 부족, 실력 부족'이라 진단하며 자신을 포함해 민주당을 향한 평가를 가감 없이 내린다. 이때의 자기반성과 성찰, 이를 토대로 한 빈틈없는 준비가 오늘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책인 '후 who? special 문재인'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책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에서 청와대의 다양한 직책을 거쳐 정치 리더로 우뚝 선 문재인에 대한 일대기다.

예스24와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들은 문 대통령의 저서 등을 묶어 소개하는 코너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에 등장한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는 이례적으로 품절됐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타임' 아시아판은 판매를 시작한 지난 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완판됐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첫날 300부가 완판됐으며 11일 추가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1회 용아박용철 문학상 수상자 도종환 시인

"시인으로 발전적인 자기 개진"
광산문화원, 학술연구지원자도 선정

도종환 시인

도종환 시인이 제1회 용아박용철 문학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금 2000만원.

광산문화원은 10일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종환 시인을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산문화원은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용아 박용철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학술연구지원 사업 공모와 문학상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성호 용아문학상 심사위원장(한양대 교수)은 "문학상 후보 모두 시단의 맹장이어서 심사위원들의 오랜 토론을 거쳐야했다"며 "자신만의 개성과 성취를 오롯하게 이루면서 최근까지 발전적인 자기 개진을 보여준 도종환 시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산문화원은 공모를 통해 학술연구지원 대상자도 선정했다. 심사결과 박사학위 논문 부분에 김미미 씨, 학술지 논문 부문에 차성환·한경훈·전동진·황선희·이승은·이찬행 씨를 선정했다. 박사학위 논문 선정자에게는 200만원, 학술지 논문 선정자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제26회 용아박용철 전국백일장'이 열리는 용아생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식 후에는 도종환 시인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한편 시상식이 열리는 '제26회 용아박용철 전국백일장'은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와 함께 작년 수상작 전시, 독서원예, 리딩푸드, 용아생가 투어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문의 062-941-3377.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신수경·바리톤 박흥우 '슈만의 가곡' 연주

16일 전남대 예술대 예향홀

피아니스트 신수경

바리톤 박흥우

피아니스트 신수경과 바리톤 박흥우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등 독일 가곡을 함께 연주하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두 사람이 이번에는 슈만의 가곡으로 클래식 팬들은 만난다. 16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예향홀. 이번에 연주할 곡은 클라라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슈만이 독일 시인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들이다.

첫 곡은 오랜 시련 끝에 클라라와 결혼에 성공한 1840년에 작곡한 '리더크라이스'가 장식한다. '사랑하는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나의 슬픔의 예쁜 요람' 등 9곡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슈만은 "낭만적인 여인이여 당신의 두 눈은 나를 매혹한다오"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두번째 작품 '시인의 사랑'은 슈만이 하이네의 '서정적 간주곡'에서 16편의 시를 발췌해 쓴 작품으로 사랑의 기쁨, 실연의 아픔, 지나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회상 등 세 가지 정서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오월에', '나의 눈물에서는', '오래된 나쁜 노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씨는 중앙대와 비엔나 국립음대 대학원을 거쳐 '겨울나그네' 등 독일 가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리더라이히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대 음대와 일리노이 음대를 거쳐 인대애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신씨는 미국, 독일 등에서 국내외에서 40여차례 독주회를 열었으며 현재 전남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내일 최진석 교수 초청 강연

최진석 교수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이 12일(오후 7시) 최진석 서강대 교수를 초청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주제로 인문학강좌를 연다.

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주체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주변 속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중장년층, 칠포세대 청년층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현재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과감하게 결정하라는 게 주 내용이다. 한편, 올해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 주제는 '자유로운 나를 위한 대화'이다. 10월까지 매달 둘째주 금요일 열리며, 정서경 시나리오 작가,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